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3. 봄 제 134호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QR코드를 통해
경상북도 의회소식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소식



600년을 이어온 고택의 향기 안동 군자마을

경북의 뿌리가 되는 문화재는 도민의 삶에 뿌리가 되는 의회와 닮았다.
역사와 세월이 커켜이 쌓인 고즈넉한 한옥과
찬란하게 만개한 꽃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안동의 봄은 유독 진했다.

Contents



마주 보다

- 04 인사말
- 08 고향사랑기부제
- 09 연간 의회일정
- 10 위원회 활동
- 18 의원 인터뷰 part I
최병근 의원
박선하 의원
김원석 의원
- 24 5분 자유발언



손잡다

- 30 의원 인터뷰 Part II
임기진 의원
김대일 의원
이동업 의원
이철식 의원
이충원 의원
- 40 도정질문
- 44 처리의안
- 50 기관 탐구 열전
일·삶·쉼이 조화로운
행복 경북여성을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52 품격 있는 경북
함께 챌린지도 실천하고~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경북이 green 제로웨이스트



같이 걷다

- 56 의원 인터뷰 Part III
최덕규 의원
윤종호 의원
손희권 의원
정한석 의원
- 64 의정 News
- 70 의회 Q&A
청소년이라면 주목!
궁금해요, 경상북도의회
알려줘요, 경상북도의회
- 71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 72 2023 전국생활 체육대축전
- 73 독자 참여
친환경 아이템도 찾고~ 색칠도 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아요
- 안동 도산서원
- 74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배한철
편집인 최대진 발행 2023년 4월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
전화 054-880-5144
기획·디자인·제작 동아에드컴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 접속 후
상단메뉴 중 의회소식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클릭 후 작성
구독 취소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054-880-5144)으로 연락



찬란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경상북도로 도약하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 에너지 가격폭등과 글로벌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이 가진 성장 기반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오로지 도민 행복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간다면 도민들의 삶과 경상북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 '노마스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이 완전히 정착되어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더욱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날들이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의 시작과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작년 우리는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하여 노력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굳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진 대형 산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산불 감시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경상북도의회는 지진 발생에 대해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와 특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확실한 지방시대를 넘어 찬란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경상북도로 도약하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토끼의 지혜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모두를 감동시켰던 봉화의 기적 같은 희망차고 기쁜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행복
같이



가치

몸의 거리는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발걸음과 보폭, 숨소리까지 경상북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발맞춰 걷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세상, 웃음꽃이 피는 경북.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경상북도의회가 있어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Happy Gyeongbuk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

2023년 경상북도의회 연간 회기 운영 일정

300만 경북도민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활동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간 회의 일수: 7회, 123일(정례회 60, 임시회 63)

회차	구분	회기(소요일/누계)		주요 안건
제337회	임사회	2.1.(수) ~ 2.9.(목)	9/9	• 2023년도 업무보고 • 안건처리
제338회	임사회	3.9.(목) ~ 3.22.(수)	14/23	• 도정질문 • 2023년도 제1회 추경안(도)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안건처리
제339회	임사회	4.25.(화) ~ 5.9.(화)	15/38	• 도정질문 • 2023년도 제1회 추경안(교육청) • 안건처리
제340회	제1차 정례회	6.12.(월) ~ 6.26.(월)	15/53	• 도정질문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 안건처리
제341회	임사회	8.29.(화) ~ 9.12.(화)	15/68	• 도정질문 •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 안건처리
제342회	임사회	10.11.(수) ~ 10.20.(금)	10/78	• 도정질문 •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안건처리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1.6.(월) ~ 12.20.(수)	45/123	• 도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 2024년도 예산안 • 2023년도 정리추경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 경남도의회와 우호 협력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구)는 2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위원회의 우호 협력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전통적 기능에 더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양 의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상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간 협력을 넘어 지역발전과 경북·경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양 의회 간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 운영위원회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 업무보고로 의정활동 첫 출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인 2월 1일과 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북의 미래전략 개발, 투자유치 확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방안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1,600cc 미만의 비사업용 차량의 이전·등록 시 지방채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 전반기 첫 행보는 현장소통으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2월 8일 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 여성아동정책관,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정황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 의 첫 소통 행보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및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아동센터장, 어린이집원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여러 고충사항들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시설과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면서 “직접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 소관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승인 의결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1일 제 337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려면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나 예산절감 등의 구체적 성과도 분명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위, 울릉도·독도 2023년도 첫 현지확인에 나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부터~25일까지 3일 동안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피고, 독도박물관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 독도수호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 농수산사업장을 현장방문해 지역자원 활용 개발 제품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오후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승격된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던 울릉도는 2021년 8,867명에서 2022년 8,996명으로 129명 증가해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농수산 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 2023년 신년 의정활동 개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가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받았다.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마련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각종 재해복구 사업을 우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을 당부하며 2022년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국토부의 ‘대구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추진 상황을 주시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공재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과 같은 경북의 역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 울릉도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3월 14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현지 확인은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매각 등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파악 후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50년 된 노후건물을 개축하여,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로 탈바꿈을 준비 중인 울릉고등학교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 중인 울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임시교사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교육청독도교육원 신축 예정인 (구)울릉초장흥분교장, 한국공항공사에서 울릉공항 직원 숙소 건립을 위해 매입 요청 중인 (구)울릉서중학교, (가칭)울릉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정인 (구)울릉북중학교 등도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교육위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등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 폐교 활용도를 높이고, 매각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0조 9,936억 원에서 7건 3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조 6,061억 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독도 관련 다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묻고,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

성을 높여서 예산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Q 얼마 전 중부선 김천-문경구간 연결철도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계기가 있으신가요?

A 경북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7년째 지속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청년 17만여 명이 일자리와 교육 등을 찾아 경북을 떠났습니다. 지방소멸을 마주하고 있는 경북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경북도가 새롭게 재도약하고,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부선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기관의 효과적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중부선은 수서에서 거제를 잇는 철도로 허리구간인 김천-문경 구간만 유일하게 단절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은 경북과 수도권 및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중요한 구간으로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었지만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 이후에나 철도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엇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토부가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신속히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북의 경우에도 경북혁신도시 내 이전기관과 연계된 기관 및 전후방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김천-문경구간 연결철도가 개통되면 경북도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A 지난해 8월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도정질문 이후 11월, 도민의 염원대로 김천-문경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경북 내륙 지역의 접근성은 한 시간 대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경북의 산업경제는 새로운 산업벨트를 한 축으로 하여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에 활력을!

최병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김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Q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발생하게 될 시너지도 궁금합니다.

A 이와 함께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에도 경북도가 우선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겠다는 추진 전략을 통해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산하 기관 및 협력업체를 유치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경북혁신도시의 발전뿐 아니라 경북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유치는 인구가 감소되고 침체되어 가는 경북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박선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Q 경북 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최근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정보력의 한계로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을 비롯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의 가사 활동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이신 조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재 발의를 검토 중인 조례에는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모범자연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

원 조례」는 최근 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경제적 안정 도모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며, 「경상북도 모범은 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는 모범자연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Q 소속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김천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부족 문제 ▲지역아동을 위한 공간마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아동 어린이집 방문에서는 ▲장애아동 어린이집 통학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등 고충해소를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살피고 다양한 도민의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동반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난 도정질문에서 보행약자도 '국립김천치유의숲' 이용에 있어 일반인들과 똑같이 불편함 없이 보편적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 정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기관과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무장애 인증 화장실 및 무장애 데크 로드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북의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또는 임차택시와 같은 대체수단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의 손길을 내밀 생각입니다.

Q 최근 지역구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A 2022년 3월 우리 울진은 초대형 산불이라는 악몽 같은 재난을 맞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고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와 성금모금 등을 통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산불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민의 90%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본격적인 피해복구가 아직 추진되지 못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주민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산불피해를 복구하여 우리 울진 주민들이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위한 의정 활동은?

A 저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제 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에 반드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3월 15일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말 그대로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에너지안보 확립, 탄소중립달성으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겁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상용원전 연계 수소생산을 위한 R&D사업 ▲SMR 활용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을 위한 첫발을 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울진에서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270만 도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울진의 참 맛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울진군
국민의힘

Q 수많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요?

A 2019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도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만 정작 보건의료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첫 행보로 김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등을 방문하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상임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첫 행보로 현지 확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관계자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안, 청원 및 도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

최병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김천)



지난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의 시작과 제 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작년 우리는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하여 노력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굳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토끼의 지혜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모두를 감동시켰던 봉화의 기적 같은 희망차고 기쁜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실한 지방시대를 넘어 찬란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경상북도로 도약하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작년 1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경북, 그중에서도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 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그야말로 세계유산의 보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가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은 국내 총 13개 중 5개로 전체의 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경북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 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 자원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마땅합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적게는 1억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6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일몰제 시행으로 2017년부터 매년 지원받던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 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 인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경상북도가 국내 세계유산 최다 보유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둘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명성을 되찾기 위해 중단된 국비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포항)



올해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신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청의 교통망 구축 계획을 보면 통합신공항이 과연 우리 경북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통합신공항의 효과가 경북 23개 시·군에 골고루 수월되어야 함에도 경북의 특정 지역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말하는 공항 경제권이 단순히 군위·의성의 공항과 인근의 배후단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바랍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중국의 청두 공항처럼 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도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 전체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당장 포항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항 물류와 연계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 수소에너지 클러스터인 블루밸리산업단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이번 신공항의 교통망 구축 과정의 우선 순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상황이 이렇진대, 다른 경북 동부권 시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동부권 시군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포항 등 우리 동부권의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또 동부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물류와 연계될 때 통합신공항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Gyeongbuk-do Council News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

임기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도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난방비는 34% 인상되었고, 등유 가격은 56.2%나 올라 400여 개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부담은 도시가스의 경우 2배 이상 부담이 늘어났고, 농촌 지역 대다수의 도민들이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30만 원 정도면 한 달을 버텼지만 올해는 50만 원 이상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의 지원비를 2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경상북도에서도 노인·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만 5000가구와 한파심터 5000개소에 145억 원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민들은 여전히 난방비 부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포항·구미·경주·경산·칠곡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평균 이하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 미만인 시군은 의성·성주·청도·봉화·영덕·울진 등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많은 지역의 도민들이 등유를 이용하여 힘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소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등유를 이용하여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더 늦기 전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난방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넘어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 예산을 편성,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여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안동)



지난달 초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요 정책의 중심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혁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 맞춤형 개혁 분야입니다. 정부는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여성아동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것이며, 도교육청 또한 유사하지만 새로운 업무를 잘 이관받으려면 조직 정비와 인력을 충원하고 교원 양성체계 및 처우 개선,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재정·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히 바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기관에 선정되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타 시·도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개혁 분야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지역을 목표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대학,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또 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합니다. 당장 올해 공모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시범 운영에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초·중·고, 대학의 학교 시설을 지역민과 함께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때마침 교육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문을 열고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2. 9.)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안동)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필수 보건 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의료 역량을 제고할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 교육 및 양성하며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북을 비롯한 인천, 충남, 전북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간 잠정 중단됐던 정부·의료계 간 협의가 지난 1월 재개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도 협의에 나설 것인 만큼 도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난 1월 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98개소 중 경북에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75%인 12개소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타파하고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이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2. 9.)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포항)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심 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교류 활성화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22년 4월에 공공기관 인사교류를 검토한 바 있고,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인사교류 조항을 두어 의료원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두었습니다. 현장의 애로 및 모니터링 등 제도의 안착과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함께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 재배치, 신규 수요, 현장 서비스 분야 재배치 등 체계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TF 구성 등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2. 9.)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경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규모 아웃렛을 유치하고자 산업자원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나 자문회의 등 변경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당초 첨단부품 등을 중점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원활한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경북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대규모 아웃렛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아웃렛의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편중 현상으로 경북도민들은 수도권과 부산·김해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어 지역의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대규모 아웃렛이 조성될 경우 연간 5백만 이상의 방문객 유치와 8천억 원의 생산 및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천여 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편리한 복합인프라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어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일터, 삶터, 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2. 9.)

김원석 의원(행정안전복지위원회/울진)



현재 울진군은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경북도와 울진군, 포스텍, 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각종 MOU 체결과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경북도와 울진군, 국회의원,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산단 유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소위 경북도와 울진군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으로 경북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울진이 변방에서 벗어나 환동해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4월 제61회 경북도민체전과 5월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울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11년 제49회 도민체전을 울진에서 개최한 후 12년 만에 군부에서는 최초로 두 번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현재 울진군은 성공체전·화합체전·안전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운영인력 비용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북도민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쳐 극복하는 동심협력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울진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 단계 도약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경북도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3. 22.)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봉화)



오늘 본 의원은 제88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 확장 및 선형개량을 위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도 1차선인 88 국지도는 추안에서 백두대간수목원 구간은 비교적 완만하나 수목원에서 김삿갓면 구간은 산악지형 특성상 굴곡이 심한 급커브로,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추안면 119센터에서 강원도 김삿갓면 구간의 2021년도 통행량은 7350대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도부터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37건입니다. 수도권에서 강원 영월, 충북 단양을 거쳐 백두대간수목원과 봉화로 올 때는 88 국지도를 이용하므로, 봉화 구간이 2차로로 개량이 된다면 영월과 단양으로 온 관광객의 발길을 수목원과 북부권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월 청령포에서 백두대간수목원까지는 49km, 고씨동굴에서 수목원까지는 39km로, 도로가 확장되면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지난 2022년 21만 7000명이었던 수목원 관람객도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88 국지도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방도 915호, 918호선 구간은 도로 관리마저 미흡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올해는 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특히 주실령 구간은 눈만 오면 도로를 통제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주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88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 봉화 구간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아울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주실령터널 공사를 금년에 착공하여 북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3. 22.)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구미)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했고, 2월 신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선정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7일 산업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을 마감하였고, 경북도에서는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일곱 곳이 신청하고 인천·부산·대전 등 광역시까지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와 구미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산학연 협력 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반도체실무협의회'와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북 전체 수출액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합니다.

올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경북과 구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여,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경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경북도, 구미시,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3. 22.)

황재철 의원(농수산위원회/영덕)



본 의원과 경북도, 영덕군은 산림과 버섯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개발, 유통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소득 창출의 마중이 되고자 영덕군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50억의 재원으로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건립된 센터는 부지와 연면적 9001㎡에 연구동과 버섯 재배동, 기능 분석실, 신품종 육종 실험실, 특허기술 상업화 모델 개발실과 고소득 바이오 연구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임산버섯 전문기관 6개 중에 영덕센터는 보유 특허 55건, 기술이전 10건 등으로 송이소나무 생산특허, 화살나무 뇌 건강 개선 특허, 송이향 유전자 대량생산 기술, 산수유 아토피 개선 기술, 비만 개선 아워버섯 기술 등 임산물 특화와 신품종 육성, 상업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는 당초 취치와는 달리 독립된 연구기관은커녕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명이 한 팀이며, 센터장이 6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유일의 임산버섯 특화 연구기관의 위상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림소득 연구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총원, R&D 연구 지원을 수차례 건의드렸지만 집행부의 현란한 말솜씨에 성과 없는 하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최소한 1과 3팀 25명의 인력과 R&D 전문기관으로 재무장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력 대비 최고의 가성비로 묵묵히 일하는 영덕센터의 공직자와 연구원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지사님의 품 안에서 임산 식약용버섯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진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Q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령이 없어, 이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에 경북도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2월에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경상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비 지원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과 같이 역대급 한파가 지속된 상황에서 지난 한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이 36.2% 인상됐고, 등유가격은 무려 56.2%나 올라 도민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칠곡 등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소도시에 집중돼 있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더 비싼 등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



는 실정입니다. 사실 올해 초 경상북도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만 5천 가구와 한파쉼터 5천 개소에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많은 도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촉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진정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비판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A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으로(서울 20개, 경기 22개, 경남 16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항상 지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군사작전 하듯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조바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실패하면서,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만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성격이 다른 이들 기관 간 통합은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립의료원을 경북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도내 3개 독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의 위탁 운영 주체인 경북대병원의 의료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위탁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본연의 역할과 함께 도민의 뜻을 전해주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동, 더 나아가 경북의 문화 환경 발전을 위해!

김대일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동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Q 최근 안동에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유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오래전부터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얼마 전 경북의 '안동 바이오생명',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등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 안동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번 국가산단 결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구나 안동은 '경북 산업융합 허브 규제자유특구'인 만큼 새롭게 만들어질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단지 유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산단에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안동에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안동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자그만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경북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Q「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안동은 전통적인 대마 재배지이고, '경북 산업융합 허브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작년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경상북도 대마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대마 재배, 대마 원료 가공, 대마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경북 산업융합 허브 규제자유특구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대마 산업화 추진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대마산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재 대마산업은 의료용 소재에 국한됐지만 대마에서 추출한 유용물질은 의료·산업·의료·생활용 소재 등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마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등 대마 관련 규제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대마산업이 더 발전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모색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Q 위원장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세계유산유산센터 경북 유치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을 촉구 하셨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작년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특히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 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에 대한 경북도의 통합관리 프로세스와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부족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역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오다가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부담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마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28일 경북도는 「경상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세계유산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지역의 풍부한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가 하루속히 도내에 건립되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경북도의회와 함께 정부와 경북도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교류를 제안합니다

이동업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포항시 제7선거구
국민의힘

손익아 의원 인터뷰 Part II



Q 최근 경북 산하 출자·출연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인사교류 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교류 활성화가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와 관련해 경북도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 2,361명의 직원들이 경북도와 도민을 위해 근무 중입니다. 대개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론 일부 기관에 경북도 공무원 파견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Q 경북도 내에서 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전혀 없나요? 인사교류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요.

△ 지난 2022년 4월 공공기관 인사교류에 대해 경북도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인사교류 조항을 뒤 의원원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후속 조치가 없어 교류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인사 교류를 통해 경북도는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및 인적자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직원들의 다양한 조직문화 습득, 열린 조직문화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경북도 내 출자·출자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원님의 인사교류 제안 방안이 궁금합니다.

△ 우선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함께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 인력 재배치, 신규 수요, 현장 서비스 분야 재배치 등 체계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TF 구성도 제안합니다. 그래야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교류 제도라는 선도형 정책 도입으로 미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경북이 선도하길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한 ‘민익의 대변인’

이철식 의원

농수산위원회
경산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Q의원님의 지역구 발전과 주민 안녕을 위해 해결하고 싶은
숙원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제 지역구인 경산시(자인·용성면, 압량읍, 동부동)는 도농복합 지역이며 권역별 주민 민원과 우선 추진 숙원사업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인면을 중심으로 한 농촌중심 지역은 농어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 개발 사업, 농어촌 청년창업지원 등을 본격 추진코자 하며 용성면, 압량읍, 동부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 생활 SOC 개선에 보다 관심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압량읍과 동부동은 대구와 김천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광역 SOC 확충과 더불어 교통체증 완화사업 등에 심혈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경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이 계속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Q최근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를 알려주세요.

△ 현재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상북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내 인구감소와 농업인 연령 구조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 도내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농어업 관련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후계농업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후계·청년 농업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농산업을 종사하며, 안정적인 정착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후계 농어업인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경제활동 촉진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도내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산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농수산업의 현실과 경북의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농수산업은 단순 먹거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보호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국 최대의 농도(農道)인 우리 경북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생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농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농산업 경쟁력 확대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인재양성 시스템의 체계적 확충과 행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현장보급에 행정 역량 집중과 함께 인구감소 등에 의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첨단 고도화·기계화 농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신규농업인·정착농업인 등이 보다 쉽게 농산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강화와 기술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하며 소득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한 승계농정책의 점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도 모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수산업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농수산업 중요성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전향적인 정책전환으로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 이철식은 경북 도민을 대표하는 '민익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들으며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충원 의원

농수산위원회
의성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Q의원님의 지역구인 의성군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해결하고 싶은 숙원사업이 있다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우리 의성은 지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다만 인구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구인 안계면을 중심으로 청년유입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어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경북의 백년대계를 제시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도전과 변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천면 유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단북 온종일 돌봄 인프라 확충, 안계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확대 운영, 신평 지방상수도공급, 안사 문화복지 누리터 조성 등 살기 좋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량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쌀산업 발전과 쌀값 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생육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알맞게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적정량 시비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특별장려금 등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다수확을 위해 다비 사용으로 저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여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정량 시비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면 쌀 소비 확대는 물론 쌀 수확량 감소로 쌀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추진을 통해 저는 우리 의성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Q지역명소 자랑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의성은 도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힐링 여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신평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다인 대곡사, 안평 방단형 적석탑이 있고, 단밀면의 낙단보는 의성군, 상주시, 구미시 세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융합되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는데 아간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신라의 역사가 살아 숨쉬며 천년 숲과 은행나무 길로도 유명한 천년고찰 고운사도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십니다. 여기에 낙동강 수로를 국내에서 처음 만



들어 쌀농사에 앞장선 안계평야는 영천 금호평야, 경주 안강평야와 함께 경북 3대 평야로 품질이 뛰어난 대표적인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구내 청년창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먹을거리·마실거리 관련 관광명소가 자리매김하고 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성군이 청년 창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저희 의성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를 기원합니다.

Q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현재, 농업 생태계와 환경자원 보전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역주민 갈등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가축분뇨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농업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논과 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농가에서 가축분을 작물에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의 양만 논, 밭에 살포하여 영농을 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일본에 비교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것은 실제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축분 퇴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농가에서는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금년 사업비가 약 360억에 불과하므로 향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면, 가축분 퇴비의 사용증가로 인한 가축분 처리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 정책을 보면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정책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낭비만 하고 실용가치가 없는 정책은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현실에 맞고 효용가치가 높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원 본연의 임무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경북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며 행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변해 질문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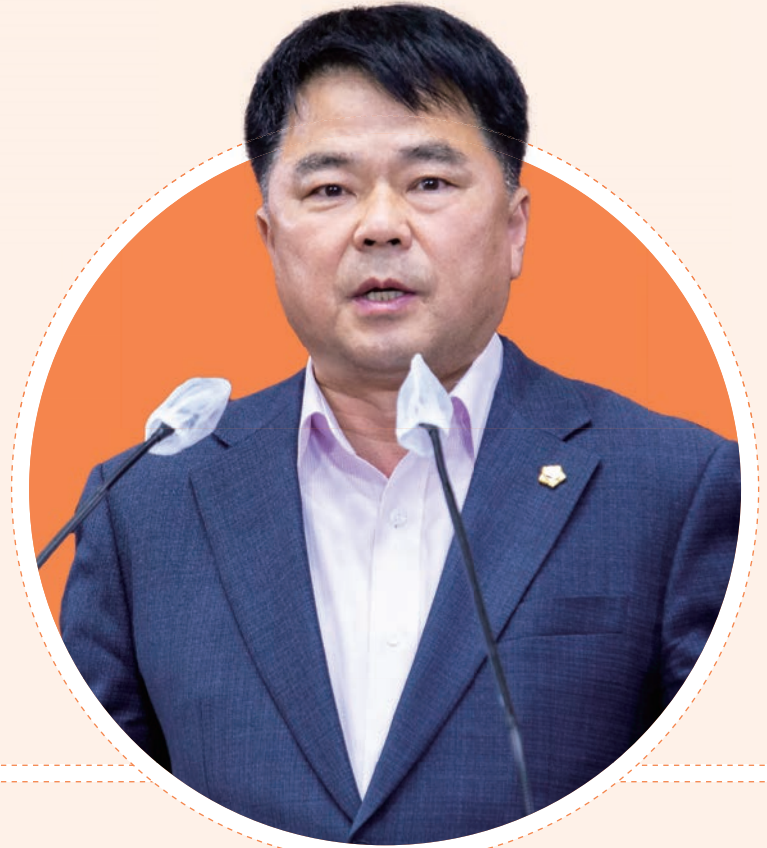
도정질문은 도정에 대한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경북도 의원들이 청취 및 수렴하여
도지사나 관계 공공기관, 실국 등 부처에 대신 질의하는 절차입니다.
도정질문은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공정한 사안이나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 방안 및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지면 관계상 도정질문 전체 내용을 모두 다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원별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3. 9.



김창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문경)



첫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을 특별
자치도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중장기계
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
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
이 큰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투자유
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2기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어떤 복안과 계
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 추모공원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투자심
사 과정에서 문경시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 투
자심사를 신청하기 전 분명히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을
것인데 이때 경상북도는 행안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
씀해 주시고 행안부의 투자심사결과는 어떻게 회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
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
구를 통한 갈등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문경시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경상
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몇 번의 회의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
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과 상주 두 지역의
외곽이면서 교통량이 적은 구도로 이용이 가능해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
설치를 제안했는데 상주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문경
시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립박물관 설치에 경북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높
이기에 중요하며 문경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 박물관 활성화에 유리합니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
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경에 입지가 필요합니다. 도립박
물관이 문경에 입지하게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문경 점촌중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가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
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
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3. 9.



정한석 의원
(교육위원회, 칠곡)



첫째, 대구 군부대 이전 선택과 집중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칠곡은 이미 행정구역이 시(市) 격인 영천, 상주, 그리고 대구에 편입될 군위와는 다르게 군부대 이전을 통해 시 승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대구는 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 상생, 민군 상생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경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 과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경북 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도 차원의 대응적 협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 후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영산인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다면 국립공원 관리를 총괄하는 건평 600여 평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경상북도 와 대구광역시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칠곡군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달성과, 그 과정에서 경북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칠곡할매글꼴’로 대표되는 다섯 분의 칠곡 할매를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칠곡 할매를

넘어 경북 할매·할배, 우리 국민 누구나 문맹을 극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칠곡의 평생교육 상징성을 대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천·동명과 대구 북구 학군 조정 및 특성화 중점 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칠곡군의 제안사항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경북의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각 학교에 어떤 사용자 참여 과정을 거쳤으며, 복합화 모델의 대표 예시와 그린학교 모델의 대표 예시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3. 9.



최덕규 의원
(농수산위원회, 경주)



첫째, 최근 10년 연간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은 6.7%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농업 관련 예산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을 보면 하천 퇴적물이 유수에 영향을 끼쳐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 및 배수관을 만들면서 교각 하부 기둥을 설치한 경우 집중호우 시 이것이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피해를 입은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셋째,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자연취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건폐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여기에서 한수원 주변 지역의 용도지구를 조금, 적어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 정도로만 풀어 주셔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울산지역은 편도 3차선이라서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딱 경주시, 경상북도 경계선에 이르면 4차선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에 관리 책임이 있으나 인근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인 관계로 시비를 투입하여 6차선으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토관리청이 신청을 받으면 매칭해서 혹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이 잘 운영이 되려면 주민 수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수용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여섯째, 도내 공공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정원 313명 중에서도 현재 29명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77년부터 ’96년까지 시행하다가 지원자가 감소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면서 한 20년 동안 중단되어 오다가 다시 그 역할에 대한 필요성으로 ’19년도부터 부활되었는데 지금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불편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의원발의 조례

1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두영 의원



개정이유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여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 규정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승오 의원



개정이유

-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용어 변경함

3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준 의원



제정이유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홍보사항을 규정함

4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청 의원



개정이유

-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시장·군수의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40명 이상 70명 이하에서 4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개정

주요내용

-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고함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 의원



개정이유

- 해양환경 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통해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하여 정의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6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순범 의원



개정이유

- 이상기후, 병해충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및 벌꿀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꿀벌의 질병 등에 지원 가능토록 하여 경북이 전국 양봉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양봉산업 지원 사업 중 꿀벌의 질병 등을 포함

7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홍열 의원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림자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산림자원 육성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을 규정함

8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용선 의원



제정이유

-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갱생, 교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녹물, 이물 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북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
-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제외 대상,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을 위한 공사비, 우선순위 대상 등 세부사항,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9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규탁 의원



개정이유

- 도지사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무인항공기 등의 순찰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대나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영숙 의원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발굴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 설치·기능·구성·해촉·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함

11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백순창 의원



제정이유

-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 지원내용,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지원대상 발굴,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

12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광택 의원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재정지원, 재정지원의 취소·경과조치를 규정함

13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만수 의원



제정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경상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4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영숙 의원



제정이유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경상북도의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지방소멸 위기의 효율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해촉·회의 등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대응 추진단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종호 의원



개정이유

-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부모회장의 임기 규정에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

16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종호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규정에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변경함

17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식 의원



개정이유

-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1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충원 의원



개정이유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농어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주요내용

- 지급대상에 도내 실제 거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개정함

19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
-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



일·삶·쉼이 조화로운 행복 경북여성을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정책에 앞장선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이 있다. 바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다.
경북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알아보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997년 처음 설립된 경북의 여성정책전문기관이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경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맞춤
형 여성 및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여 여성이
행복한 경북,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도민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경북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지역의 여성인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
하고 대내외 여러 연구기관과 함께 NGO, 공공기관 등을 잇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은 광역새일센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산하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북여성의 일자리 복지 실현을
위해 경북 시군 여성들의 취·창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
았던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모든 시군 취업상담사들이 힘들게 땀방울을 흘린 결과 취·창업에
서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정책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일자리 창출기관으로서의 선순
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대내적으로 개발원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시군 새일센터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기에 이
같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단순 취업 지원에 그
치지 않고 여성 취·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창업, 경력단절 예방 등 전문인력을 통한 아낌
없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공감사업 중점 추진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경북의 성평등지수에서 제일 낮은 의사결정분야에
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저출생·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청년유출 방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여성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여성 뉴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할 방침이다.
지역 내 우수한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
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을 대표해 여성의 인권 보장 및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취지다.
청년 유출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
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며, 도내 청년센터의 성인지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 제시와 함께 청
년활동과 참여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청년발전소 운영과 청년공감사업도 계획 중이다.

- 📍 예천군 도청대로 53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3층
- ☎ 054-650-7900
- 🌐 <https://forwoman.or.kr/>

함께 챌린지도 실천하고~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경북이 green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찻숴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평균 4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제 제로웨이스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오늘 하루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한다면 나와 지구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



하루 하나씩, 지구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용기 내고 용기를, 용기내 챌린지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류준열과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하여 화제가 된 용기내 챌린지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자 천 주머니, 에코백, 다화용기 등에 식재료와 음식, 음료를 포장해 먹는 챌린지이다. 텀블러 사용, 재사용 가능한 대나무 제품 사용 등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다.

청소도 즐거운 놀이가 된다, 트래시태그

환경보호 활동이 놀이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청소가 필요해 보이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전과 후를 비교해 SNS에 올리는 것이 트래시태그이다.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SNS의 특성에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겁게 지구를 위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쉽고 간단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트렌디한 놀이, 트래시태그 챌린지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고고챌린지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플라스틱,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 탈플라스틱을 위해 고고챌린지를 실천하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 고고챌린지는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절하고, 해야 할 한 가지를 실천하고'를 약속한 후 다음 릴레이 지목 수행자를 지목하면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물론 경상북도청, 다수의 기업 등이 챌린지에 동참해 환경을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지키는 플로깅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와 흔히 아는 조깅이 합쳐진 단어인 플로깅은 가볍게 달리면서 줍는다는 뜻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다. 하천이나 공원, 해변 등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아 버리는 것이 플로깅이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남녀노소 인기만점이다. 플로깅으로 지구를 향한 달리기를 함께 실천해 보자.

NATURE OF

❁ 봄의 따스함이 대지를 감싸고 싱그러운 에너지가
경북 구석구석 넘쳐납니다.

도민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경상북도의회의 꿈이

그 봄 속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고령 자산동 고분군

GYEONGBUK



경상북도는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3종의 재난안전망을 촘촘히 갖춰 도민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 상처, 어루만지고파

최덕규 의원

농수산위원회
경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Q 얼마 전, 재난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들을 위한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지난해 가을 포항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를 기억하시는지요. 다른 곳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포항, 경주 지역민에게 힌남노는 물질적·정신적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당시 사망 2천만원, 주택 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등 총 1만2천363건에, 628억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실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이 보상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급 기준에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하고요. 이 경우 시민들의 의견금과 예비비, 재난구호기금 등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졌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내난을 입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현재 안전 및 재난관련 경북도 보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난지원금 보상 금액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보험을 제도화했습니다. 경북도도 이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가고 있지요. 인적보험인 도민안전보험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와 22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보험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모든 주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도비 6억1천800만원을 시군에 보조했습니다. 반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북도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책 제안을 5분 발언을 통해 한 것입니다.

Q 풍수해보험에 대한 현재 경북도의 상황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경북도와 시군의 관심은 낮은 편입니다. 물적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재난지원금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주택 전파가 7천200만원, 반파가 3천600만원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이 금액은 도민의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인 만큼 보상 기준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시군 전체 중 오로지 김천시만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Q 경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춰야 할까요?

우선 풍수해보험에 대해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제시된 보험료 가입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경주 시내 소재 단독주택 80㎡의 경우 총 보험료 5만3천200원 중 정부 지원 3만7천200원, 주민부담은 1만6천원 정도입니다. 보험료는 일반의 경우 국비 56.5%, 지방비 13.5%, 개인 부담액은 30% 정도로 보험금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입 대상 역시 그 범위가 넓습니다.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가입·단체가입 등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아직 자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도민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 사고 시 위험을 보장받는 것처럼 풍수해보험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재난재해 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처럼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협력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북도는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3종의 재난안전망을 촘촘히 갖추 수 있게 되어 도민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보다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보호 못하는 현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윤종호 의원

교육위원회
구미시 제6선거구
국민의힘

Q 지난 여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위법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해달라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Q 현행 법의 어떤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나요?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처분이 있을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있어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는 평준화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는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발생한 입법 미비입니다.

Q 이 사안은 확실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으로 인해 경북 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 128페이지에는 “위 ‘배정’만 의미하므로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배정이 아닌 전형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경북 시군 중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이는 포항을 제외한 경북의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불가함은 물론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등 학교폭력 재생산의 가능성을 현행법이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Q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만 피해학생의 진정한 보호와 회복,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을까요?

허점으로 지적된 제20조 제4항의 ‘배정’에 대한 적용 구분을 평준화, 비평준화와 관계없이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이 발의안은 지난 가을 본회의 심사를 통과해 정부와 국회로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

기존 학교의 학생은 줄고 학교 내
유희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학교가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생태계 재구축에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이뤄지길

손희권 의원

교육위원회
포항시 제9선거구
국민의힘

Q 경북의 교육행정 처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도정질의를 통해 제가 경북의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이 그 무엇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에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관료주의적인 면이 강해서 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롭게 개교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개교시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입주한 뒤 1년이나 지나서야 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면 어떨겠습니까. 그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는데 유독 경북도만 그렇지 못한다면요? 지난해 도정질의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왜 유독 경북의 교육행정 처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오래 걸리는 걸까요?

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경북도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설계기간, 또는 공사기간,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학교 이전과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이동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이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물론 구도심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행정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결국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조와 사업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여러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을 우선시하여 행정을 처리한다면 이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Q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존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구도심이나 오래된 아파트가 생기면서 학생은 줄고 학교 내 유희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내 유희시설 활용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교가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생태계 재구축에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99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2019년 4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학생과 교사만을 넘어서 해당 지역을 위한 중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학교 부지 내 수영장, 주차장, 주민대피시설 등을 갖춰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항과 울릉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MOU가 지난 2월 체결되는 등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 중입니다. 여기서 더 바람이 있다면 행정기관 간 중재하고 조율하는 협의과정에서 상호 원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폐교 처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지역 발전에 무심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이 지역 발전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그 과정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경상북도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깨끗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으로 군부대가 이전되면 이를 통한 지역 간 상생, 민군 상생의 가장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대승적 판단이 칠곡군의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미군부대 통합 이전은 칠곡으로!

정한석 의원

교육위원회
칠곡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Q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 대구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도민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시의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은 국군 4개 부대, 미군 3개 부대 총 7개 군부대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칠곡군이 제일 먼저 대구시에 7개 부대 통합 이전을 받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 의사가 없어서 칠곡군이 협의대상 최우선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군위군 등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곡군은 과거 6.25전쟁을 통해 증명되었다시피 천혜의 자연 지형을 활용한 낙동강 방어선의 심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희망지인 석적읍 도개·망정리 일원은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와 함께 '6.25전쟁 구국의 3대 전투'로 꼽힐 만큼 치열했던 다부동전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정학적·군사적으로 우리나라 국방의 요충지인 칠곡군으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Q 칠곡군으로 이전이 확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칠곡군은 이미 행정구역이 시(市) 격인 영천, 상주, 그리고 대구에 편입될 군위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해 시 승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대구시 입장에서 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칠곡군으로 군부대가 이전되면 이를 통한 지역 간 상생, 민군 상생의 가장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경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 과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북 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도 차원의 대응적 협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 후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교육행정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칠곡군 지천·동명면의 학군 조정에 대한 의견도 도정질문에서 피력하신 걸로 압니다.

학군 조정이라는 것 또한 자치단체 간의 입장과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여 끊임없이 논의하여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시 북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지천과 동명면의 주민들께서는 예전부터 학군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칠곡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학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로 전입하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대구로 보내는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군을 개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대구로 우후죽순 나갈 것이라는 일부 편협한 생각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Q 그렇다면 급속한 학생 유출을 우려하는 일부 도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도교육감 면담에서 김재욱 군수께서는 해안으로 중학교 대상 중점학교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중점학교 지정·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오히려 대구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칠곡군으로 진학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승적 판단이 칠곡군의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천과 동명면에 과학·수학·영어 등의 교과 중점 중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또 다른 해안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경상북도의회는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 아베 신조 총리 내각 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내세워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2023년 첫 임시회에서 주요 안건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월 1일부터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후계·청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지역활력 증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할 조례를 처리했고, 5명의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 연결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최병근 의원, 김천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구축 및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활성화(김대일 의원, 안동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동부권 도민의 접근성 강화 방안 등(손희권 의원, 포항시) ▲경상북도의 난방비 지원 확대 촉구(임기진 의원, 비례대표) ▲지방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권광택 의원, 안동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연임 인사검증 실시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일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019년에 임명된 김성조 사장은 3년간의 임기를 채우고 전년도부터 1년간 연임했으며, 이번 인사검증은 1년간의 추가 연임에 따라 실시됐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2월 9일에 개최된 제 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처리 완료됐다.



배한철 의장, 달항아리에 도민 행복 소원 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은 새봄을 맞아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 달항아리와 차함에 도민 행복을 담은 경상북도의회의 소원을 새겼다.

희망찬 새봄을 맞아 달항아리에 경상북도의회의 염원을 담아내는 행사는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배한철 의장은 가로 90cm, 세로 90cm 크기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달항아리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한 글자, 한 글자 힘차게 써 내려갔다.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의 힘찬 필력에서 “더 나은 경북, 도민 행복”을 기원하는 의지를 되새기고, 함께 한 박영서 부의장과 박용선 부의장은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차함에 뜻과 힘을 모았다.

이날 새겨진 소원 달항아리와 차함은 2023년 계묘년의 검은 토끼를 바탕에 그린 후, 1,300℃의 망댕이 가마에 붉은 기운을 덧입히면 온전한 경상북도의회 소원 달항아리와 차함으로 탄생하게 된다. 완성된 달항아리와 차함은 제25회 문경차사발축제 기간인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제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효율적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발대식 개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호광 의원)는 2월 9일 ‘2023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의원연구단체 소개 ▲의원연구단체 회원 소개 ▲질의응답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의원연구단체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등과 관련한 정책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구성되었고, 이번 2023년 출범된 의원연구단체는 「농어촌청년 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이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신호광 정책연구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2개 의원연구단체는 토론회, 세미나, 현장확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원입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단체 대표의원과 회원의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832만원 성금 전달

경상북도의회는 2월 15일 최근 발생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에게 도의원 6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이 모금한 832만원의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리아접경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규모의 파병을 하여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있게 한 형제의 나라이며, 2001년 경상북도와 튀르키예 불사주가 자매결연을 맺고, 2013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개최하는 등 경상북도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日 ‘독도의 날’ 행사 중단해라! ‘독도의 날’ 조례 폐기하라!

경상북도의회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독도의 날’ 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올해 첫 도정질문과 제338회 임시회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가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제1회 추경예산의 추경규모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김창기(건설소방위원회, 문경), 정한석(교육위원회, 칠곡), 최덕규(농수산위원회, 경주)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2023년도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 노마스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이 정착되어 도민들의 생활이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날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8회 의정아카데미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3월 22일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상북도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라면 주목!

궁금해요, 경상북도의회 알려줘요, 경상북도의회

지방자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코너!
경상북도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지루하고 고루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 경상북도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다. It's Q&A Time~!

Q&A

Q. 경상북도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 정책과 입법, 도민의 부담, 기타 경북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청과 그 산하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경북도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합니다. 또 경상북도의회는 경북도민이나 경상북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상북도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런 일을 해요

1.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경상북도의 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도청에서 일을 잘하거나,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사·감독합니다.
3. 경상북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합니다.
4. 경상북도에 계획된 일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5. 경상북도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새로운 경사북도!
행복한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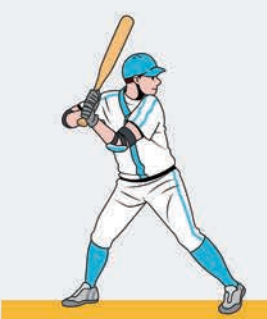
2023 전국생활

KOREA SPORTS FOR ALL FESTIVAL

체육대축전

2023. 4. 27. ~ 30.

경상북도 일원(주 개최지 구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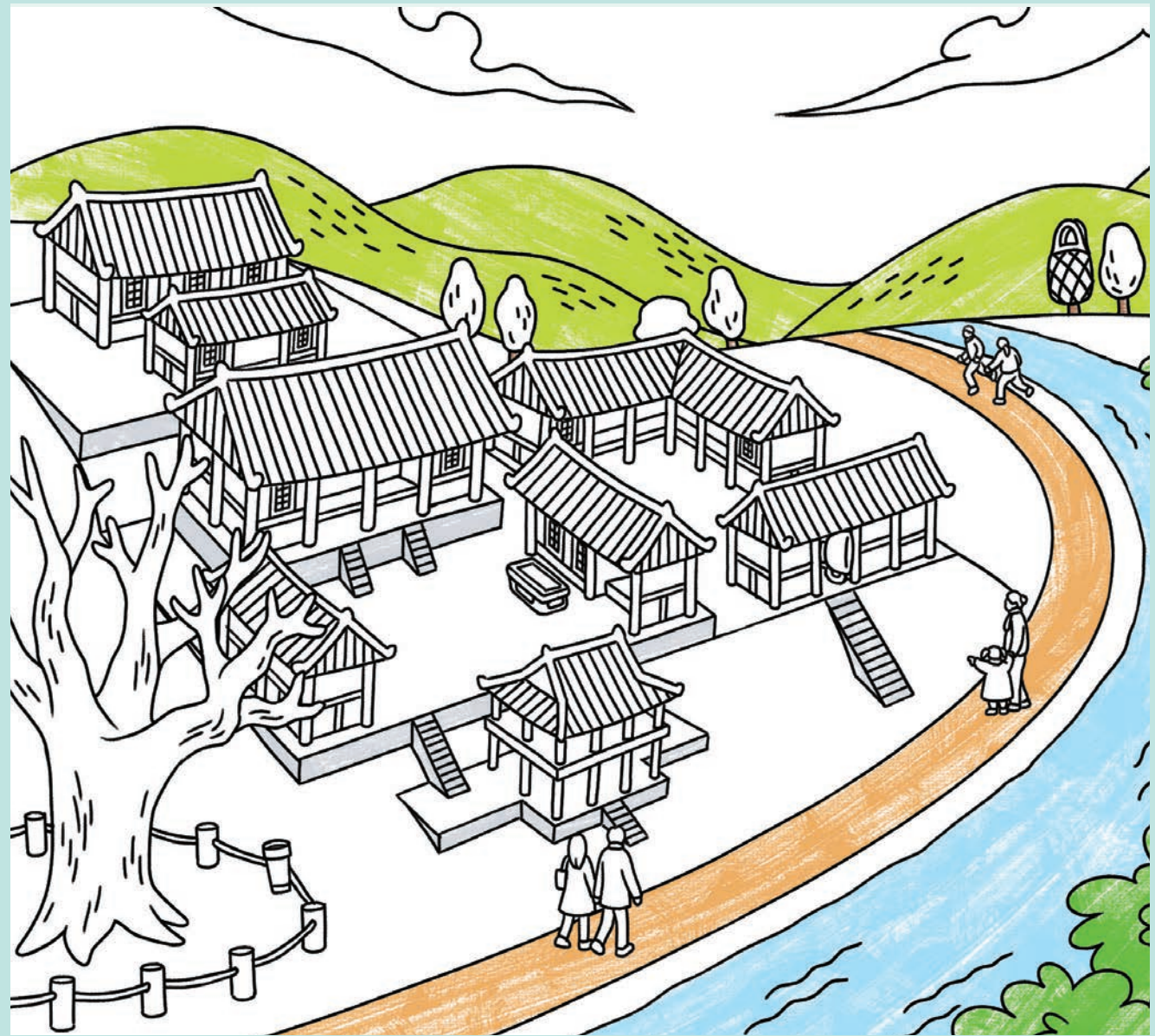


같이 걷다 독자 참여

친환경 아이템도 찾고~ 색칠도 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아요

안동도산서원



숨은그림찾기 응모 방법

안동의 장소 속에서 친환경 관련 그림들을 찾아 우측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054-880-5144)



참여 QR코드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QR코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 | 정당표시**
- 국민의힘: 국
 - 더불어민주당: 민
 - 무소속: 무